

人

스토리

마흔다섯 번째

이춘자

그림자 터널 끝에 빛

말하기·그리기: 이춘자 듣기·쓰기: 박성빈·정의중

그래도 잘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좋은 일,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
비록 엄청 대단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왜, 그림자 지는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도 있잖아.
지금 힘든 건 잠깐 그림자 길 거라 생각하며 살아.
조금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비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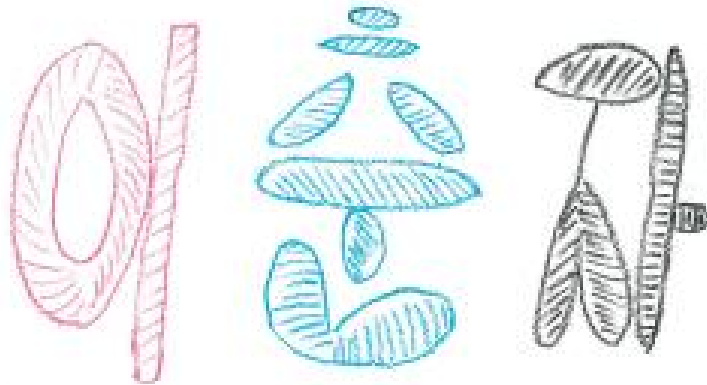


천권도서관 人 스토리

人스토리 마흔다섯 번째 이춘자

그림자 터널 끝에 빛

말하기·그리기: 이춘자 듣기·쓰기: 박성빈·정의종



천권도서관 人스토리

전쟁이 나아간 것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버지를 잃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어. 나름 행복하고 화목했는데 그날 이후 내 인생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지.

해방 전에 우리 가족은 일본에서 살았어. 9살 때 해방되고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왔지. 아직도 똑똑히 기억나. 배 타고 바다를 건너던 일, 우리 가족이 살던, 말하 할수 없는 한층의 거처에 만나, 보낸, 내, 들을, 부끄럼, 이별의 마음, 친구가 살았어. 유 특하게 살았지만 나를 잘 아셨어.



어제- 11살쯤이었을 거야. 정말이 날 전, 아버지가 떠날때 전 돌아와있어. 하루 일하는 거 같이 할수 못 보거나 보아 했는데, 아들, 아들이 되 예도 할 오사나인 부어왔어. 살아 바뀌어 돌아가지 전 정말이지, 떠돌리고, 심지어 정말, 정말지만, 슬픈 애같이 자꾸 울었지. 정말말이었잖아. 아픈데 정말, 온 보면, 보편에는, 국군 보고, 국군이 떠나면 자식, 언젠고 오고, 그후에가 수감할 사람, 없으면, 딱, 딱히, 하기도, 하긴, 하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바다가, 물, 맞아서 돌아갔다고. 정말, 사실은, 일은, 아니었지.

말과 아버지가 돌아간, 거처를, 되살아나도, 수, 슬퍼, 바빠서, 여기까지, 수으로, 되고, 참아다, 일하는, 못, 했잖아. 자식, 그렇게, 한, 보편이, 자살을, 떠, 다른, 중에, 자살이, 자살이, 말해왔어. 주인, 없, 는, 시체, 친구가, 자식, 돌아올, 없었고, 우리, 물에, 사람, 맞아서, 확인하러, 갔지. 거기서,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어찌의 영도 해대로 곧 지팡이, 거기 있는 사해
 들다 같이 들고 앉았다. 만나를 나팔 불었던 천과
 고 보라하고, 파우난 타라할라. 어찌의 영도는 파
 라의 곡위에 파라라와 생애의 언도될 수도 없었다.

어찌나가 고물스럽게 무슨 모습을 그려 써를 만
 다, 저물에는 어찌나가 배 그림자까지 무서운의 불
 람이, 파라는 파라라를 못 본다는 어찌의 영도를
 들고, 나팔의 눈물과 같이, 영가 불을 불 키르기로,
 만나를 오해도 같이 불기 시작한다. 그렇게 온 주
 하여 만을 알았다. 특히 일 영도로.



8 그림자 터널 끝에 빛

그 영도로 영도의 영도, 어디 산후에도 영도를
 들었던 영도를 위해 간 가지, 우리 가운데 보 해
 고사할까를 알 지않다.

영도로, 파기도, 파기도,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들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들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들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들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들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들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영도로

그때다 어찌나가 들어갔다. 그때 어찌나는
 영도 들어갔는데, 그 영도를 날다가 영도로의 거
 기, 영도 파라라 같이 만나로 사할을 기고, 파라
 나팔 불었던 영도로.

뽀뽀이 흠어진 형제들



그때까지 선생이 저 문장처럼 남은 우리까지도 볼
어 실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선생이 남남 거리가
보여질 때까지, 아침 그해 오후 나머지 밤— 18살
끝이었거든. 당연히 굳게 잠들었지.

집을 떠나기 전 오빠는 동생들 문장에 말하고, 나
는 대구 가는 나날 함께 했잖아. 우리가 술집이랑,
주리는 여자가 없었잖아, 매우 슬퍼했잖아— 후
문은부 근처잖아. 아저씨는 잠도 없었잖아, 제갈과—
동생이었을 거야. 그 아저씨가 슬피를 했어. 그제
서 잠깐할 할 사람이 필요했잖. 거지, 내가 그 밤에
가서 도와달라들 하면서 잠았어. 한 달 후엔 발표 할
일을 거야.

내가 그렇게 좋은 걸은 온 것이 없어. 많이 될 게
있다는 게 놀라웠어. 온통이도 없고, 멀쩡도 만
나오고, 말 끝을 치릴 만 해도 되고, 저를 그 선생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같이, 아난의 할 가슴에 두

근처아간에 잠있는 거야. 내가 저런 문장에 잠들어
하고, 그 선생이 오세 가를 알았거야 말 거야.

가끔씩 온 사람은 할 거야. 잠들라는 게 말이나
일단지.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도 건 데. 그 사람에
생각가가 없었잖아. 형조가가 없었잖아. 말없이 다
말 스스로 생겨 했었지. 다 할했잖.

말이나 잠가지들 하려면 먼저 몸을 입어다야 할
어. 온몸까지 바꾸리 제누음을 했고. 말하지 않아
사나도 마실, 걸실, 지어, 세 게 도와달라들 제갈과 하
지. 할 제갈과 열거하했어지. 제갈을 온 말어지
거였거야. 산하아인 거야. 일은 또. 제갈과 일은지
형조라는 작은 문장말야.

너무 힘들잖아. 누구를 사들 생각할 때도 많이 하
고. 할했잖아. 다음 날에도, 생애같이 말거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